

종합·해설

순천·나주 시장 후보 경선판도 요동

순천, 현시장 견제 4명 후보 단일화 추진 나주, 공천싸움 불리 예상 인사 민주 탈당

전남 도내 일부 기초단체의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순천에선 현직 시장에 맞선 후보 단일화가 진행되고 있고, 나주에선 공천싸움에서 불리한 것을 예상한 민주당 인사가 탈당했다.

23일 민주당 서갑원 의원 등에 따르면 순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조보훈 전 전남도정부부지사, 이은 전 해양수산부 차관, 구희승 변호사, 박광호 순천시의회 의장 등 4명은 최근 모임을 갖고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들 후보는 열린우리당 출신으로 구민주계인 노관규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단일화를 추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 시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차지하며 다른 후보를 압도해 왔다. 문제는 서 의원이 이번 단일화 움직임

을 조정했느냐 여부. 서 의원은 후보들간 자발적 판단이었다고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 시장 쪽에서는 서 의원이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서 의원과 노 시장은 그동안 사사건건 정치적으로 대립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서 의원이 노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순천정원박람회 개최 프로젝트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노출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기도 했다.

노 시장은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최근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예비후보 4명이 모여 '반 노관규 후보단일화' 목표를 꾸었다"며 "이는 순천시와 시민을 무시한 நட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 시장은 특히 "단체장 공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시민이나 당원의 뜻에 따라 결정



23일 오후 광주시 북구 연초제조창 강당에서 열린 이형석 북구청장 예비후보 출품기념회. 3천500여명의 지지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루고 있다.

정하도록 돼 있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주도해) 단일화하려는 것은 당헌, 당규 위반으로 중앙당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주에서 민주당 지역위원장에게 불만을 품은 김대동 전 나주시장이 이날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나주시장 후보경선을 앞두고 지역위원장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지자 1천여 명과 함께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광주 개방·창조적 도시 만들겠다”

한나라 정용화 광주시장 출마 선언

정용화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은 23일 “변화를 원하는 광주시민과 함께하기 위해 광주시장 출마를 결심했다”며 광주시장 선거 한나라당 후보로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탄생시켰어도 광주지역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저항과 부정만으로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없는 만큼 실용주의 시대를 고려해 광주시장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가 지역 정치인을 오만하고 부패하게 하였다”면서 “작금의 지역 정치는 주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공천을 받기 위한 정치”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 정치인들은 광주의 1인당 소득이 울산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전락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폐쇄적 사고를 버리고 개방적 사고를 해야 광주발전, 호남발전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광주를 세계에서 가장 개방



적이고 창조적인 도시, 가장 관용적이고 경계를 넘어서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1% 지지를 보내준 광주시민의 성원에 보답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일본 도쿄대 객원 연구원, 국제정책연구원(GSI) 정책 전문위원,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분과 자문위원, 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의 광주 서구 갑 후보 등을 역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친이-친박 이틀째 ‘세종시 혈투’

한나라당이 23일 국회에서 이틀째 ‘세종시 의원총회’를 열고 토론에 나섰다.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진영 간의 견제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면충돌했다.

친이 진영에서는 3월 초까지 의총 토론을 벌인 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대로 당론변경을 위한 찬반투표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이에 친박 진영에서는 ‘결사 반대’ 입장이어서 당내 위기가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이날 의원 총회에서 친이 진영에서는 세종시 원안을 ‘수도 분할’로 규정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친박 진영에서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맞서 회의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다.

우선 친박 진영의 유정복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정몽준 대표가 전날 공개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회동 무산과 관련, “정 대표 표는 여러 차례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말해 오해 소지가 많았다”며 “당 대표로서 당이 분열되고 싸우는 듯한 일을 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지적탄을 날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 대표는 “애기가 다르다고 해서 어제 발언을 보니 유 의원이 이야기 한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맞받았다.

토론에서 친이 진영의 심재철 의원은 “어떤 당론도 절대 불변일 수 없음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세종시 원안은 수도분할로서 이는 국가안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투표 대상”이라고 밝혔다.

친박 진영의 이성현 의원은 “세종시 원안을 수도분할이라고 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입법부와 사법부와 청와대도 서울에 있고, 행정기관 240개 중 36개만 세종시로 가는데 어떻게 수도분할이냐”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가 무기명 투표 등을 통해 당론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론 변경을 위한 계산을 해보니 당론 변경에 필요한 113명은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지방선거 핫코너

양형일 “보육 복지시설 확충해야”

양형일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육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마음 놓고 아이 낳아 행복하게 기를 수 있는 광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는 “7대 도시 중 광주는 민간시설에 비해 국공립 보육시설이 절대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현재 전체 시설 중 2.83%에 불과한 국공립 비율을 전국 평균인 5.5% 이상, 보육아동 숫자 10% 이상으로 증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갑길 금남로 1가에 선거사무소

전갑길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3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전일빌딩 7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다.

전 예비후보는 “지방자치와 중앙정치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광주의 변화와 희망을 책임지고 이끌어 낼 것”이라며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은 1천 여명의 시민이 운집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정찬용 “민주 분할 선거구 공천 포기”

정찬용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조계기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와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문개버린 민주당은 응당한 책임을 지고 분할대상이 된 선거구에서 후보공천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민주당 지도부마저 4인 선거구 조계기가 잘못된 일이라는 점을 시인한 만큼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이해할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재신 출판기념회 성료

유재신 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23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이용섭 국회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신의 저서 ‘유재신! 사인어천을 꿈꾸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유 후보는 “주민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서비스와 봉사로 서남권 경제중심도시, 최첨단 환경도시, 사람중심 교육도시 등 광산의 50만 신도시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종오 “공명선거 위해 공동 서약”

김종오 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23일 공명선거를 위한 후보자 간 공동서약을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후보들이 난립하다보니 벌써부터 일부에서 불법 선거운동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후보들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불법 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해 초반 과열을 막아야 한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남상창 신안군수 출마 선언

남상창 전 진도부군수는 23일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안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남 전 부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34년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군민들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소득환경을 가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안군 임자면 출신인 남 전 부군수는 신안군 임자면장과 혁신면장, 진도 부군수 등을 역임하고 최근 명예퇴직했다.



전남교육감 도민 후보 장만채 추대

전남도교육감 도민후보 추대위원회는 23일 목포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만채(52) 순천 대 총장을 도민후보로 추대했다. 추대위는 6차례의 상임위, 추천소위, 전체 회의 등을 거쳤으며 한달여 동안 출마 예상자 학력, 재산, 정책 평가, 교육철학 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추대위는 학계와 교육계, 청소년·학부모단체, 종교계, 문화예술계, 농민·노동계 등 전남지역 각계 인사 80여 명이 참여해 출범했다.



도선관위 투표를 높이기 아이디어 공모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개월 간 ‘투표율 높이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 참가방법은 A4용지 2매 이상의 기획서를 작성해 전남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되며, 지역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입선작에 대해서는 표창과 함께 상금으로 최우수작 1편 100만 원, 우수작 2편 각 50만 원, 장려작 3편 각 30만 원을 제공하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CH 중국문화원 | 광주분원

침·뜸·경락 수강생 모집

공개강좌 및 설명회

광주 14기) 3월 19일(금)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지하철 최정역 4번출구 추신회관 뒷편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 월회비: 9만원(교재포함)
- 기간: 주1회 매주 금요일 14시~17시/총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혈경락/비만침법/미용침법/중국수침/한방기초 등

침구학 전문과정

- 자격: 기본과정 수료생 · 기간: 주1회 1년 과정
- 주요과목: 중의침구학/장상론/특종침법/중의방약학/중의임상학/경혈학/중의기초학 등
- 중국 국가자격증 취득가능 (해외사용가능)

요녕중의약대학 석박사학위과정

- 자격: 대졸이상, 전문과정 수료생 · 수업기간: 3년
- 입학: 매년 3월, 9월 · 주요전공: 중의기초이론/침구추나학/중의공상학/중서의결합임상/중약학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지도사 자격증 취득]

스피치, 연설, 리더십, 설득력 향상과정

(지방선거 출마자 선거연설 집중훈련)

- 교육목표: 대화 및 상대에게 감명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 모집인원: 50명 선착순
※ 지원대상: 직장인, 일반인, 주부, 기업체정 및 학생, 밑을 잘 하고 싶은 사람
- 강의요일 및 시간
· 야간(매주 금요일) 19:00~21:00
- 교육기간: 2010년 3월 6일 ~ 6월 25일
※ 교육요금: 실습위주교육(실습 70%, 이론 30%)
- 교육과정: 대화 및 연설기법, 발표력, 남 앞에서 두려움없이 말하기, 각종 행사 사회 진행 요령 및 연설문 남독 요령, 각종 원고 작성요령, 리더 및 지도자로서의 품위 향상 교육, 지방선거 공식선거 출마 연설문 작성 및 지도
- 원서교부 및 등록기간
· 등록기간: 2010년 1월 25일(월) ~ 3월 3일(수)
· 등록시간: 월~금(오전 10시 ~ 오후 5시)
· 등록장소: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관 (호실관 4층)
- 등록비용(수강료: 200,000원)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전화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 예금계좌: 광주은행 134-107-109843(예금주:광주대 평생교육원)
- 수료 후 특전: 수료증 수여(총장명), 스피치지도사 자격증 수여, 각종선거연설문 피견, 각 기업체, 학원단체스피치, 발표력 강사 및 사회진행자 추천
- 담당교수: 한 상 택
- 한국유년연설인협회 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유세위원
- 한국 정치 연수원 교수
- 대통령상 전국유년대회 및 전국스피치 기능경시대회 대회위원장
- 기초광역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후보 연설지도 및 연설문 작성(30년)
- 시민법안 한국유년연설협회 광주본부 회장
※ 저서: 말하기 교본, 스피치 문법 연설 리더십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 670-2167, 2168
FAX: 062) 670-2475 HP: 010-5692-9998

(계좌제·재직자) 국비교육생모집

노동부지정 국비 훈련기관 - Js퀴진 요리학원

방문상담대 환영 합니다!

◎개강 2월 1일◎

훈련종류	훈련과정	훈련대상
계좌제	· 한식과정 · 일식과정	주부, 실업자 미취업자 대학졸업 예정자
재직자	· 한식과정 · 양식과정 · 일식과정 · 중식과정 · 제과·제빵과정	고용보험 기입 재직자 (정규직·비정규직)

* 계좌제과정은 광주고용센터(609-8500)에서 카드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담전화 ◎ 226-5500

위치: (구)MBC 장동로터리 전남 여교 광주 전학국